



中, 올 물류총액 8천8백68조원 달할 듯
연 20%대 고성장 지속

올해 1분기 중 중국의 사회물류총액은 15조6천억 위엔(한화 약 1천8백7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4.2% 성장했다. 이로써 중국 물류산업은 2003년 이후 매년(분기)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1분기의 성장세가 2~4분기 중에도 지속될 경우 올해 중국의 물류총액은 73조9천억 위엔에 달할 전망이다.

물류수요의 지속 증가로 GDP와 물류총액의 비율인 물류수요계수가 전년 동기 2.8에서 3.1로 상승했다. 이는 GDP 1단위에 3.1단위의 물류총액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성장의 물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중국의 물류 수요계수는 1.6~1.7 수준이었으나 이후 지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공산품 물류총액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1분기 공산품 물류총액은 약 13조7천억 위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25.2% 성장하면서 전체 물류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해 사회물류총액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어 수입 화물 물류총액이 10.2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농산품과 재생자원 물류총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사회물류 총액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공업생산, 고정자산투자, 교역 등 3대 물류 수요처의 성장세가 GDP 성장률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화물 운송량은 전년 동기대비 11.5% 증가한 50억5천4백만 톤으로 GDP 증가율을 앞질렀다.

규모 이상 공업 판매총액과 고정자산투자 증가



율이 모두 20%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도 물류총액 증가세 유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1분기 중 대외교역 증가율이 23.3%에 달한 가운데 수출과 수입이 각각 27.8%와 18.2% 성장했다. 1분기 물류업 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전년 동기대비 16.7% 증가한 3천6백16억 위안으로 역시 GDP 성장률을 상회했다. 전체 서비스업 부가가치 총액에서 물류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동기대비 0.4% 포인트 상승한 17.1%를 기록했다.

중국은 올해 사회물류총액이 8천8백6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물류업이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시스템 및 정책 환경 제약, 독자 브랜드 부재 등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하다.

1분기 중국의 사회물류 총비용은 전년 동기대비 15.3% 증가한 9천3백3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 포인트 높아졌다. 그러나 사회물류 총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 포인트 낮아진 18.6%를 기록했다.

부문별 구성에서는 운수비용이 5천2백9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3.8% 증가하면서 전체 사회물류 총비용 대비 56.7%의 비중을 차지했다. 1분기 운수비용 증가의 주요인은 화물 운송량이 뚜렷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관비용(비중 31.6%) 가운데는 배송비용(1백33억 위안)과 유통가공비용(5백71억 위안), 포장비용(1백26억 위안), 정보 및 관련서비스 비용(10억 위안)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35.3%, 27.9%, 36%, 36.6%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동기대비 11.7% 늘어난 관리비용(1천96억 위안)이 사회 물류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7%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했다.

체코, 포장기자재 산업 활기 포장산업 매출액 연 20억 달러 달해

체코의 포장산업규모가 외국인 제조업투자 활기에 따른 수요증가로 최근 수년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2005년에 3백80억 크라운(약 18억4천만 달러)에 달한다.

체코 포장산업 협회(SYBA: Czech Packaging Institute)에 따르면 체코의 포장산업의 시장규모가 2003년에 처음으로 3백억 크라운을 돌파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전년대비 3.3% 성장을 기록했다. 이 협회는 이와 같은 포장산업의 성장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완성차업체들의 중동부유럽 진출과 이에 따른 부품업체들의 대거 진출로 자동차산업용 포장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체코의 포장산업은 향후에도 성장세를 보여 2010년에는 4백49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장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플라스틱제 포장으로 2005년에 체코 전체 포장산업의 41.3% 점유하고 있다.

플라스틱제 포장산업은 1990년대까지는 종이·판지제 포장산업보다 규모가 적었으나 2001년부터 최대의 포장산업으로 부상한 데 이어 2005년에는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5.3% 성장한 1백56억 크라운에 달한다.

적용분야가 다양해 향후에도 포장산업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며 2010년에는 체코 전체 포장산업의 45% 정도를 점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제 포장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포장제 산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플라스틱제 포장과 함께 포장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이·판지제 포장산업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유지해 2005년 1백15억 크라운이었던 시장규모가 2010년에는 1백30억 크라운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대부분 맥주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리제 포장의 경우 다른 재질의 포장제 사용확산에 따라 2004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체코에는 약 4백개의 업체가 포장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1993년 이래 최신 포장기계 도입 등에 수억 달러가 투자되는 등 포장기계 수요가 1990년대에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 이래 2003년에는 5천3백만 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인다.

현재 포장기계 시장은 포화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수요의 대부분이 대체수요에 의존하고 있는데 따라 2004년 이후 포장기계에 대한 체코 내 수요가 감소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포장기계의 수입도 2003년에 9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에는 전년대비 3.2% 감소한 8천7백만 달러에 그쳤다.

오랜 전통을 보유하고 있는 체코의 포장기계 생산은 포장산업의 수요확대에 따라 매년 큰 폭의 증가를 보여 생산규모가 1993년 1천6백만 달러에서 2005년에는 3천4백만 달러로 12년 만에 두 배 이상 성장했다.

멕시코, 식품포장기계 시장 유망 가공식품산업 급성장

최근 들어 멕시코 소비자들은 요리하기 편리한 가공식품은 물론이고, 디자인 등 포장이 좋은 식품을 찾고 있으며, 대형 할인매장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식품가공업체들은 보다 긴 유효기간이 가능한 포장공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식품 가공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비가공 식품에서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최근 몇 년째 2자리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주목받는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또한 멕시코의 가공식품 해외수출이 증가하면서 이 산업은 더욱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

가공식품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식품가공 및 포장기계 시장은 외국계 업체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기업의 진출여지가 많은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럽과 미국기업이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기술과 가격면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산 식품포장기계의 진출이 유망하다.

멕시코의 포장산업 규모는 2005년에 67억3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12.83% 성장세를 보였다. 멕시코 포장산업협회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전년대비 1.19% 증가한 8백31만톤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포장산업의 성장세와 함께 포장기계 및 부품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므로, 고가의 최첨단 포장기계보다는 다소 저렴하면서 필요한 기능만 보유한 중간수준



의 포장기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가장 수요가 많은 포장기계 종류로는 박스나 가방을 채우고, 단고, 포장하거나 라벨링하는 기계와 병이나 캔을 포장하는 기계를 들 수 있다.

최근 멕시코 소비자들의 취향이 고급화되면서 각 제조업체들이 포장에 더욱 투자를 기울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고급 포장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으므로 가격경쟁력을 내세운 일반 포장기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아직까지 한국산 제품의 멕시코 시장내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주요 포장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품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美, 재생가능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촉진
기술과 비용 극복 과제**

재생이 가능한 자원으로 생산한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s)은 석유에서 추출한 플라스틱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폐기 후 자연적으로 썩기 때문에 환경에 매우 친화적인 제품으로 미국의 주요기업들은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 생산하는데 총력을 쏟고 있다. 재생가능한 화학제품의 새로운 세대를 열은 바이오플라스틱은 옥수수, 감자, 생물자원(Biomass) 찌꺼기 등이 주 원료로 농부들은 농작물의 사용처를 기존의 식품과 에탄올 생산에서 다각화를 희망하고 있다.

바이오플라스틱은 1980년대 한 번 침체가 겪었다. 이는 석유 추출 플라스틱 가격이 훨씬 낮은 상태, 바이오플라스틱의 성장에 장애 요소가 되었지만 최근에 불고있는 친환경제품 선호에 맞아 떨

어지고 있다. 바이오화학산업 역시 현재 빈약한 규모이지만 1천5백억 달러 규모로 발전 전망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석유 화학제품의 10%를 대체할 전망이다. 현재는 3.25달러어치 옥수수로 15달러짜리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미국 최고 기술개발연구소 Battell 사, 100% 곡물로 제조된 폼(Foams)을 개발 중 석유제품의 대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갖출 전망이다.

식량메이저 카길(Cargill Inc.)사는 본격적인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친환경 제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Ford 자동차 역시 콩으로 제조된 폼, 자동차 시트, 팔 받침대, 머리 받침대 등에 사용을 고려중이다. 이 외에도 생활용품 전문 체인점인 Crate & Barrel사는 바이오 폼 넣은 소파 판매 개시, 그린 소비자를 타깃, 점포내 고객들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장소에 진열하고 있으며 Hickory Springs Manufacturing Co. 사는 콩 컴파운드로 자동차용 부품 생산, 기존 화학제품 공급업체가 카트리나 태풍으로 가격 50%나 인상해 바이오로 전환하고 있다.

**美, 크레이튼 다기능 고객서비스센터
제품 테스트, 품질 보증**

고성능 폴리머 글로벌 선두기업 크레이튼 폴리머 LLC(Kraton Polymers LLC;Kraton)는 중국 상하이 와이까우차우 국제 자유무역구(Waigaoqiao Free Trade Zone)의 기술센터 신

설로, 회사의 다기능 고객서비스센터의 설치가 완성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술센터에서는 아태지역 고객에게 제품 테스트, 품질 보증, 고객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크레이튼의 새로운 기술센터는 포장 역량도 갖추고 있는바, 제2단계가 완료되면 아태지역 내의 크레이튼 제품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전반적으로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새로운 다기능 고객서비스센터는 역내 유통 및 고객 기술지원을 모두 담당한다. 크레이튼은 2007년 2월 크레이튼 D(Kraton D), 크레이튼 G(Kraton G), IR 제품용 마감 서비스, 보관,포장을 담당할 유통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통센터는 아태지역 납품소요 기간을 5주 단축시킬 전망이다.

크레이튼은 일본 츠쿠바에 있는 기술센터도 계속 운영하여 일본 현지시장 및 인접지역에 기술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한다.

마이클 에반스(Michael Evans) 아태지역 부사장은 “금번의 이 센터 신설은 아태지역에 대한 크레이튼의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센터 신설로 점점 증가하는 고객들의니즈 충족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확충했다. 다기능 고객서비스센터 신설은 아태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크레이튼의 전반적 전략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크레이튼(Kraton)은 세계 유수의 고성능 폴리머 기업으로, 세계 최대의 SBC(styrenic block copolymer : 스티렌계 블록공중합체) 생산업체이다.

40여년 전에 SBC제품군의 화학구조를 처음

밝혀냈는데 SBC는 고기능 열가소성 엘라스토머(elastomer)이며 높은 유연성과 저항력, 강도, 내구성, 가공용이성으로 다양한 제품의 성능 개선에 기여한다.

크레이튼의 폴리머는 접착제, 코팅제, 소비재, 생활건강 제품, 접착제, 윤활제, 의약품, 포장재, 자동차관련 제품, 도로포장재, 지붕재, 신발 등 다양한 제품에 이용되고 있다.

美, GE 플라스틱 사업 포기
1백16억달러에 매각키로

제너럴일렉트릭(GE)이 플라스틱 사업부문 자회사를 매각한다.

GE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화학 업체인 사우디 베이직 인더스트리(사빅)에 1백16억달러에 GE플라스틱스를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매각작업은 오는 3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부채 상환 분을 제외하면 GE가 손에 쥐게 될 금액은 약 90억달러다. GE는 이 돈을 현재 진행 중인 자사주 매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사업부문 구조개편에도 투입할 방침이다. GE의 제프 이멜트 회장은 “이번 매각은 고성장 하이테크 산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동차, 헬스케어, 가전, 운송수단, 기능성 포장, 건설, 통신, 광학매체 관련 산업에 66억4천5백만달러 상당의 플라스틱 수지를 공급하고 있다.

메사추세츠주 피츠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직원 수는 60개국 1만3백여명이다. 